

종교적 우주관의 다층위 공간 조직: 발리 ‘트리 히타 카라나’의 형태론적 구현

이간용*

Multi-scalar Spatial Organization of Religious Cosmology: The Morphological Realization of Tri Hita Karana in Bali

Khan Yong Lee*

요약 : 인간의 거주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특정 문화 집단의 종교적 우주관과 가치 체계가 공간적으로 구현된 결과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인도네시아 발리의 힌두 철학인 트리 히타 카라나(Tri Hita Karana)를 중심으로, 종교적 우주관이 다양한 공간 규모 속에서 어떠한 공간 조직 원리로 구현되는지를 고찰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가옥, 취락, 수박(Subak) 등 개별 공간 단위에 집중해 온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미시적 생활 공간에서 거시적 생태·생산 공간에 이르는 다층위 공간 조직(multi-scalar spatial organization)의 구조와 상호 연계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발리의 공간 체계는 공통된 우주론적 질서가 서로 다른 공간 규모 속에서 반복·변주되며 구현되는 유기적인 특성을 보였다. 가옥(Pekarangan)은 신성과 세속의 질서를 재현하는 미시적 소우주로 기능하였으며, 취락(Desa)은 카자-클로드(Kaja-Kelod) 축과 3대 사원 체계를 중심으로 공동체 규모의 종교적 공간 질서를 조직하고 있었다. 또한 수박은 물 자원 네트워크와 계단식 논 경관을 통해 종교적 우주관과 생태적 질서가 결합된 거시적 공간 체계로 작동하였다. 결과적으로 트리 히타 카라나는 공간 배치와 방향 체계, 사회적 위계 및 생태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조직하는 다층위 공간 조직 원리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발리, 종교적 우주관, 트리 히타 카라나, 다층위 공간 조직, 문화경관

Abstract : Human settlements can be understood not merely as physical environments but as spatial manifestations of a society's religious cosmology and value system. This study examines how the Balinese Hindu philosophy of Tri Hita Karana is embodied in spatial organization across multiple scales. Moving beyond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individual spatial units such as houses, villages, or Subak systems, it explores the integrated structure of multi-scalar spatial organization from domestic to ecological-production spaces. The findings show that a common cosmological order is repeatedly expressed across different spatial scales. The house(Pekarangan) functions as a microcosm reproducing sacred and secular order; the village(Desa) organizes communal space through the Kaja-Kelod axis and the three-temple system; and the Subak operates as a macro-scale system linking religious cosmology with ecological management through water temples and terraced rice fields. Tri Hita Karana thus functions as a multi-scalar organizing principle integrating spatial arrangement, directional order, social hierarchy, and ecological relationships.

Key Words : Bali, Religious cosmology, Tri Hita Karana, Multi-scalar spatial organization, Cultural landscape

*공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ylee@gjue.ac.kr)

I. 서론

인간의 거주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의 조성이 아니라 그 집단이 지닌 종교적 우주관(cosmology)과 철학적 가치 체계가 물리적으로 투영된 결과물이다. 엘리아데(Eliade, 1959)가 지적하듯, 전통 사회의 인간집단은 자신들의 거주 공간 중심에 우주론적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균질적이고 세속적인 공간(profane space)을 의미 있는 성스러운 공간(sacred space)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또한 라포포트(Rapoport, 1969)는 주거 및 취락의 형태가 기후나 기술적 제약과 같은 물리적 요인보다 문화적·종교적 가치 체계에 의해 더욱 근본적으로 규정된다고 보았다. 즉, 인간은 자신들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공간에 상징적 의미와 위계를 부여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종교적 질서를 물리적 환경 속에 구현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도네시아 발리(Bali)는 종교적 우주관이 일상적 생활 공간 속에 체화된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아 왔다(Suartika, 2010:2-5). 발리의 전통 가옥과 취락 구조, 그리고 전통 관개 체계인 수박(Subak)은 자연환경과 인간 활동, 종교적 질서가 결합된 독특한 공간 체계를 형성한다. 특히 UNESCO(2012)는 수박을 단순한 관개 기술이 아니라 인간·자연·신성 간 조화를 구현한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러한 발리 공간 체계의 근간에는 발리-힌두 사회 특유의 철학인 ‘트리 히타 카라나(Tri Hita Karana)’가 자리한다. 이는 신(Parahyangan), 인간(Pawongan), 자연(Palemahan) 간의 조화를 지향하는 우주론적 원리로서, 발리 사회의 공간 배치와 방향 체계, 공동체 질서를 조직하는 핵심 원리로 기능한다.

발리 공간 체계의 중요한 특징은 이러한 우주론적 원리가 특정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공간 규모에서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점에 있다. 개인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가옥(Pekarangan), 공동체의 사회·종교 활동이 전개되는 취락(Desa), 그리고 자연환경과 생산 활동이 결합된 수박(Subak)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공간 규모는 공통된 종교·철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상호 연계된 공간 질서를 형성한다. 즉, 동일한 우주론적 원리가 서로 다른 공간 규모 속에서 반복·변주되며 발리 특유의 다층위 공간 조직(multi-scalar spatial organization)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발리의 전통 건축, 취락 구조, 혹은 수박 체계와 같은 개별 공간 단위에 대한 분석에 집중한 경향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종교적 우주관이

공간 규모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형태론적 질서 속에서 재구성되고 확장되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공간 층위가 어떠한 연계 구조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통합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발리의 종교적 우주관이 가옥, 취락, 수박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 규모에서 어떠한 공통된 공간 조직 원리로 구현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종교적 우주관이 인간의 정주환경과 경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인간·자연·신성 간의 관계가 공간 구조 속에서 어떠한 형태론적 질서로 조직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형태론(morphology)은 공간 요소들의 배치 원리와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 고찰을 통하여 발리-힌두 철학의 우주론적 기반과 공간 조직 원리, 그리고 관련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어 발리 중부 지역의 전통 취락과 수박을 중심으로 수행한 현지답사(2025.01.09.~01.12.)를 통해 공간의 형태와 구조, 경관 특징 등을 관찰하였으며, Google Earth, ArcGIS, OpenStreetMap 등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하여 전통 가옥과 취락, 수박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현지답사의 시·공간적 한계를 보완하였다. 본 연구는 종교적 우주관과 공간 조직 간의 관계를 다층위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조망하면서 발리 지역에 대한 문화지리학적 이해를 고양하고 나아가 현대 공간 및 환경 문제를 성찰할 수 있는 문화생태적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II. 발리 힌두 철학의 우주관 및 연구 동향

1. 발리 힌두 철학의 우주관

발리 힌두교(Agama Hindu Dharma)는 인도 아대륙의 힌두 전통과 역사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나, 그 형성과 전개 과정에서 발리 고유의 종교적 요소들과 결합하며 독자적인 종교 체계를 형성하였다. 특히 14세기 말 마자파히트 왕국의 쇠퇴 이후 자바 지역의 힌두-불교 엘리트 집단이 발리로 이주하면서, 기존의 토착 신앙, 조상 숭배, 그리고 불교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통합되었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다(Eiseman, 1990; Hobart *et al.*, 1996). 이로 인해 발리 힌두교는 교리 중심의 체계라기보다 의례, 공간, 그리고 일상적 실천에 깊이 뿌리내린 종교적 실

천 체계로 이해된다.

이러한 종교적 실천은 자연과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인식 속에서 구체화된다. 발리인들은 자연물, 특히 물과 같은 요소에 영적 힘이 깃들어 있다고 인식하며, 다양한 제의를 통해 이를 조율한다(Eiseman, 1990). 예컨대 지면에 놓이는 제물인 세계한(Segehan)은 하위 영적 존재들을 달래고 공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이며(그림 1), 이는 상부 제단에 올리는 제물과 함께 수직적 우주 질서를 구성한다. 또한 조상 숭배는 중요한 종교적 요소로서, 조상의 영혼이 일정한 정화 과정을 거쳐 후손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존재로 이해된다. 이러한 신앙은 특정 자연 지형과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를 단일한 교리로 일반화하기보다는 지역적 실천의 다양성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발리 힌두교의 교리적 핵심은 Parisada Hindu Dharma Indonesia(PHDI)에 의해 “Moksartham Jagadhita ya ca Iti Dharma”라는 명제로 정식화되어 있다(Pitana, 1994). 이는 다르마(Dharma)의 실천을 통해 현세적 조화와 번영(Jagadhita)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해탈(Moksha)에 이른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은 해탈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힌두 전통과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현세적 질서와 사회적 조화를 중시하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즉, 발리 힌두교에서는 영적 성취가 현실 세계에서의 조화로운 질서 확립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세계관은 대우주와 소우주의 상호 대응 관계 속에서 체계화된다. 발리 철학에서 대우주(Bhuana Agung)는 자연과 우주 전체를 의미하며, 소우주(Bhuana Alit)는 인간의 신체와 공동체를 포함하는 미시적 세계를 지칭한다(Hobart *et al.*, 1996). 인간과 공동체는 대우주의 질서를 모방하고 재현함으로써 우주적 조화에 참여하며, 이러한 대



그림 1. 세계한(Segehan)의 사례(Ubud 소재 상가)

출처 : 저자, 2025.01.

응 관계는 물리적 공간 조직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이러한 우주 질서를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원리가 바로 트리 히타 카라나(Tri Hita Karana)이다. 이는 신과 인간(Parahyangan), 인간과 인간(Pawongan), 인간과 자연(Palemahan) 사이의 조화를 의미하며, 발리 사회의 공간구성과 공동체 질서를 조직하는 기본 원리로 작용한다(Windia, 2006). 이 개념은 전통적 세계관에 기반하면서도 현대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설명하는 틀로 재구성된 측면을 함께 지닌다.

한편, 발리의 우주 질서는 단순한 조화가 아니라 상반된 요소 간의 긴장 속에서 유지되는 균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이원론적 세계관은 루와 비네다(Rwa Bhineda)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며, 선과 악, 생과 사, 신성과 세속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공존하며 균형을 이루는 관계로 간주된다(Eiseman, 1990). 따라서 종교적 실천은 어느 한쪽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힘 사이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우주 질서는 구체적으로 방향과 공간의 체계 속에서 조직된다. 발리에서는 산을 향하는 카자(Kaja)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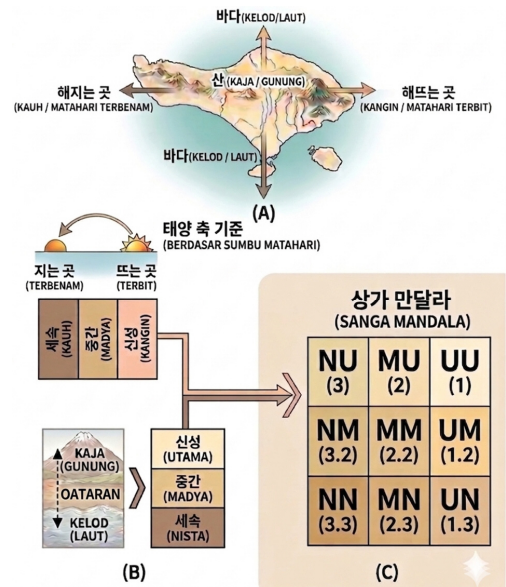


그림 2. 발리 힌두 철학의 우주관 및 공간관

출처 : Budihardjo, 1985, Dharmayanty *et al.*, 2019, Sitinjak *et al.*, 2020, Adhika and Dwijendra, 2020의 그림 및 아이디어 종합

* (C)에서 U는 Utama(우타마, 신성), M은 Madya(마디아, 중간), N은 Nista(니스타, 세속)를 나타내고, 수치는 영성 혹은 공간적 위계의 정도를 나타냄.

바다를 향하는 클로드(Kelod), 해가 뜨는 방향인 칸인(Kangin)과 해가 지는 방향인 카우(Kauh)라는 축을 기준으로 공간이 구조화된다(Hauser-Schäublin, 1993). 이러한 축은 우주를 9개의 방위(Sanga Mandala)로 분할하는 체계로 확장되며, 이는 데와타 나와 상아(Dewata Nawa Sanga)¹⁾로 체계화된다. 각 방위는 특정 신적 존재와 연결되며, 중심에는 최고신이 위치한다(그림 2).

결국 발리 힌두 철학은 이원론적 균형과 방향 체계로 조직된 우주 질서를 인간의 생활 공간에 구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즉, 신성과 세속, 상위와 하위, 중심과 주변은 모두 특정한 공간적 위계와 좌표 속에서 위치 지워지며, 이러한 질서의 유지가 곧 사회적 안정과 종교적 완성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발리 힌두 철학의 우주관과 공간 질서는 가옥, 취락, 수박(Subak) 등 다양한 공간 규모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왔으며, 이를 둘러싼 연구 역시 지리학을 비롯하여 건축학, 인류학, 농업생태학 등 여러 분야에서 축적되어 왔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공간 규모별로 간략히 검토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발리 힌두 철학의 우주관이 공간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가옥, 취락, 수박(Subak)과 같은 개별 공간 규모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

먼저 가옥 단위에서는 발리 전통 주거 건축의 방위 체계와 공간 구획 원리를 정리한 건축학 연구(Dwijendra, 2003)와, 전통 가옥 내부에서 트리 히타 카라나 철학이 트리 만달라(Tri Mandala) 구조를 통해 어떠한 공간 위계로 구현되는지를 분석한 연구(Artayasa, 2021)가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는 발리 전통 가옥이 단순한 거주 시설이 아니라 종교적 우주관을 반영하는 상징 체계임을 보여주었다.

취락(Desa) 단위의 연구에서는 카자-클로드(Kaja-Kelod) 축이 발리 산간 마을(Bali Aga)의 물리적 구조와 사회적 위계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인류학 연구(Reuter, 2002)가 대표적이다. 또한 발리 취락 내 3대 사원(Kahyangan Tiga) 체계와 역사적 성역을 중심으로 공간 보존과 이용 양상을 분석한 연구(Dwijendra, 2008; Putra et al., 2020) 역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발리 취

락이 종교적 방향 체계와 공동체 질서를 기반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수박(Subak) 체계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J. Stephen Lansing의 연구(Lansing, 1991)는 물 사원(water temple)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수박 체계의 공간 조직과 종교적 질서를 규명하였다. 이후 Lansing(2006)은 종교적 의례와 협력 체계가 생태적 복잡계 속에서 효율적인 관계 경관을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Windia(2006)는 트리 히타 카라나 철학이 수리 체계와 공동체 조직 속에서 어떠한 물리적·사회적 구조로 구현되는지를 설명하였다. 이들 연구는 발리의 종교적 우주관이 농업 경관과 생태 질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은 트리 히타 카라나와 발리 힌두 우주관이 공간 구조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특정 공간 단위와 개별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지닌다. 가옥과 취락은 주로 건축학과 인류학의 관점에서 공간 구획과 사회 구조 분석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수박은 농업생태학과 환경인류학의 영역에서 제도적·생태적 기능 분석에 집중되어 왔다. 그 결과, 미시적 거주 공간인 가옥에서 중간 규모의 공동체 공간인 취락, 그리고 거시적 생태·생산 공간인 수박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우주론적 질서가 서로 다른 공간 규모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변주·적용되는지를 통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개별 공간 요소의 기능이나 상징성 분석에 집중된 경향이 강하였으며, 서로 다른 공간 규모들이 실제 지표 공간 위에서 어떠한 방향 체계와 위계 구조를 공유하며 상호 연관된 공간 체계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 형태론적 분석은 단순한 건축 형태의 기술에 그치지 않고, 공간 요소들의 배치 원리와 방향 체계, 위계 구조 및 상호 관계를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접근을 의미한다.

국내 연구의 경우, 발리의 전통문화와 관광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양승운, 2005; 홍석준, 2005; 신성원, 2010; 윤혜린, 2014; 정강우, 2014; 정정훈, 2018; 이정은, 2023; 장상경, 2024). 그러나 발리 힌두 철학이 공간 속에서 구현되는 원리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기존 국내 연구로는 전통 가옥의 외형적 특징을 소개한 연구(장순용, 1997), 아시아 농

업 유산 비교 연구 속에서 발리 수박 체계를 부분적으로 다룬 연구(정주연·이혜은, 2016), 바투르 사원의 종교·사회적 의미를 현지 조사를 통해 분석한 연구(박계연, 2018), 발리 수박의 관념 체계를 간략히 언급한 연구(정정훈, 2021), 그리고 발리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간 관계를 거시적으로 검토한 연구(이간용, 2025; 2026)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역시 개별 사례나 특정 주제 중심의 접근이 대부분이며, 가옥·취락·수박(Subak)을 하나의 연속된 공간 체계로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트리 히타 카라나라는 종교적 우주관이 미시적 거주 공간인 가옥에서부터 공동체 공간인 취락, 그리고 거시적 생태·생산 공간인 수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공통된 공간 조직 원리로 구현되는지를 형태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종교적 우주관이 인간의 정주 환경과 농업 경관을 어떠한 방향 체계와 위계 질서 속에서 유기적으로 조직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기존의 분절된 논의를 종합하고 발리 공간 구조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III. 트리 히타 카라나 우주관의 다층위 공간 조직

1. 미시적 생활 공간: 가옥(Pekarangan)의 방위 체계와 우주론적 질서

발리인들에게 가옥은 단순한 물리적 피난처나 주거 공간이 아니라, 대우주의 질서가 지표면 위에 밀도 있게 압

축된 소우주이다(Hobart *et al.*, 1996:101-102). 담장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가옥 구역은 그 자체로 완벽한 우주의 축소판으로 기능하며, 철저히 발리의 방향성 이원론인 카자-클로드 축과 강인-카우 축의 교차에 의해 통제된다(Hauser-Schäublin, 1993:104). 이 직교하는 두 축은 가옥의 평면을 9방위(Sanga Mandala)로 분할하며, 이를 다시 신성함의 위계에 따라 세 영역인 '트리 만달라(Tri Mandala)'로 구획한다(그림 3). 이는 트리 히타 카라나 철학이 가장 미시적인 공간 스케일에서 형태론적으로 구현되는 기본 골격이다(Dwijendra, 2003:15; Wijaya, 2021).

그림 3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가장 신성한 영역인 우타마는 트리 히타 카라나의 파라향안에 대응하는 공간이다. 특히 카자(산)와 생명이 싹트는 강인(동쪽)이 교차하는 북동쪽(Kaja-Kangin) 모서리는(그림 3의 ① 지점) 가옥 내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방향으로서, 여기에는 조상신과 힌두교의 삼주신을 모시는 가족사원인 상가(Sangah 또는 Pemerajan)이 배치된다. 이곳은 인간의 발이 닿는 지면보다 높게 기단을 쌓아 올림으로써 세속의 공간과 수직적으로 분리된 성(聖)의 공간을 엄격하게 구별한다(Eiseman, 1990:14)(그림 4). 종교적 신성함을 수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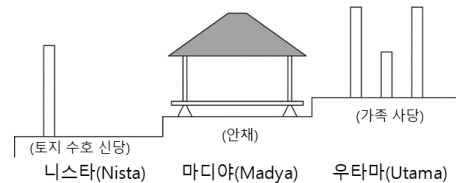


그림 4. 발리 전통 가옥의 우타마 영역 내 공간적 위계
출처 : Budihardjo,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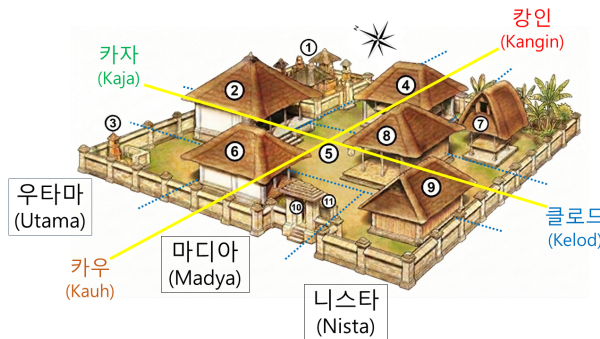


그림 3. 발리 전통 가옥의 상가 만달라 및 트리 만달라 구조

출처 : Tjahjono, 1998) 및 Sitinjak *et al.*(2020)의 그림 재구성.

* ①~⑪의 명칭은 Putra *et al.*(2020)에 의거함.

- ① 상가 케물란(Sangah Kemulan)
- ② 발레 다자 혹은 발레 메텐(Bale daja or meten)
- ③ 상가 팽이젠 카랑(Sangah pengijeng karang)
- ④ 발레 당인 또는 발레 시케파트(Bale dangin or sikepat)
- ⑤ 나타(Natah)
- ⑥ 발레 다우 또는 발레 티양상아(Bale dauh or tiangsanga)
- ⑦ 룬붕(Lumbung)
- ⑧ 발레 델로드 또는 발레 세케남(Bale delod or sekenam)
- ⑨ 파온(Paon)
- ⑩ 앙쿨 앙쿨((Angkul-angkul)
- ⑪ 알링알링(Aling-aling)

적(3차원적)인 형태론으로 시각화하는 것이다(Dwijendra, 2003). 이는 트리 히타 카라나가 2차원적 평면 분할을 넘어 입면 높낮이까지 결정하는 종합적인 공간 조직 원리임을 보여준다. 발리인들은 매일 아침 이곳에 제물을 바친다.

북동쪽을 신성시함에 따라 발리의 전통 취락에서는 사진 2에서처럼 독특한 가옥 경관이 관찰된다. 곧, 대략 남북 방향의 중앙 축선형 광장(도로)을 따라가다 보면 서편(왼편) 가옥들에서는 가옥 사당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그렇지만 동편(오른편) 가옥들에서는 그것을 볼 수 없다(그림 5).

이에 따라 취락 전체를 조망하면 그림 6과 같이 가옥 사당의 배치가 일률적인 독특한 경관을 형성한다. 각 가옥의 북동쪽에 사원을 배치하기 때문이다. 현대화의 진행 속에서도 발리의 전통 가옥들은 카자-강인에 위치한 사당의 절대적인 위치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향을 보인다(Artayasa, 2021). 그림 2의 ②는 주로 가장의 생활 및 수면 공간, ③ 집터와 대지를 수호하는 정령을 모시는 작은 사당이다.

이어 중간 영역인 마디아는 인간의 일상적 삶이 영위되는 공간이다. 이는 파왕안에 대응한다. 카자-클로드 및 강인-카우 축이 교차하는 가옥의 중앙부(Natar)(그림 3의 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공간은 가족 구성원들의 거주, 일상적 활동, 사회적 교류, 그리고 다양한 의식이 이루어지는 등 연계와 소통의 기능을 수행한다. 동쪽의 ④는 종교적 의례를 준비하거나 친척을 맞이하는 개방형 전각, 서쪽의 ⑥은 젊은 자녀들의 침실이나 일상적인 작업 등 다목적 공간이며, 손님맞이용으로도 사용된다. ⑧은 손님을 맞이하거나 의식을 준비하는 공간이며, 장례를 치르기 전 시신을 임시로 두는 용도로도 쓰임으로써 마디아와 니스타의 성격을 동시에 내포한다.

가장 세속적인 영역인 니스타는 팔르마한에 대응하는 공간이다. 정화와 순환을 상징하는 클로드와 카우가 교차하는 남서쪽 모서리이다(Reuter, 2002:51-52). 이 구역에는 쓰레기장이나 화장실, 축사가 배치된다. 또한 부정된 기운을 불로 정화한다는 의미에서 부엌도 주로 남쪽에 위치한다(그림 3의 ⑨). 이 영역에는 곡식 창고(⑦)도 자



그림 5. 발리 전통 가옥의 가족 사당 경관 특성(Petulu의 사례)

출처 : 저자, 2025.01.

* 대략 남북 방향의 중앙 축선형 광장(도로)을 중심으로 서편 가옥의 경우 북동쪽에 자리한 가족 사당은 도로에서 쉽게 관찰되지만, 동편 가옥에서는 그렇지 않음.



그림 6. 발리 전통 가옥 및 취락의 '가족 사당' 경관

출처 : 좌-Balipedia, 우-Booking의 자료에 지리 정보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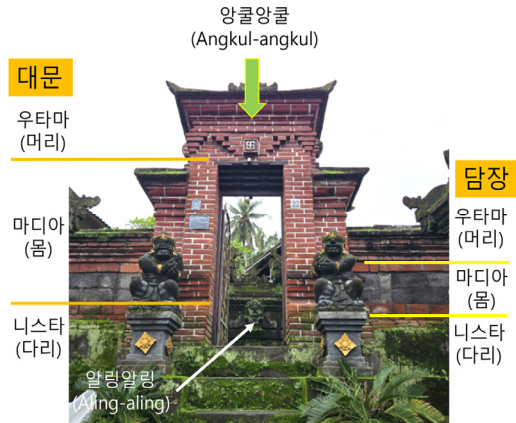


그림 7. 발리 전통 가옥의 대문 및 담장의 트리 앙가적 위계 (Petulu 소재)

출처 : 저자, 2025.01.

* 트리 앙가(Tri Angga)는 상·중·하의 위계질서를 통해 우주와 공간을 이해하는 발리 힌두 철학의 기본 원리인 반면, 트리 만달라는 이러한 위계 원리가 실제 공간 구획 체계로 구현된 형태임.

리한다. 그림 3의 ㉔은 대문으로서 발리의 전통 조각이나 문양으로 장식되는 경우가 많다. ㉔은 가림막 벽으로서 악귀가 집 안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대문과 담장에서도 수직적 위계가 지켜진다(Sitinjak et al., 2020)(그림 7). 한편, 돼지우리나 화장실의 경우는 담장 너머에 '테바(Teba)'라고 불리는 유희 뒷마당이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이 구역 내에 지어지며, 중앙 마당이나 본채에서 아예 보이지 않도록 담장 외곽에 짓거나, 정원수 등을 심어 시각적, 후각적으로 중심 공간과 격리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상에서처럼 발리의 전통 가옥은 단순한 평면적 배치가 아니라, 신성(파라향안)-인간(파웁안)-자연 및 세속(팔르마한)이라는 트리 히타 카라나의 3요소가 9방위의 나침반 위에서 정확한 공간적 좌표를 점유하고 있는 다층위 공간의 최소 단위이다. 곧, 발리의 전통 가옥은 트리 히타 카라나 우주관이 미시적인 척도에서 기하학적으로 구현된 물리적 소우주로서(Dwijendra, 2003)의 성격을 지닌다.

2. 중시적 공동체 공간: 취락(Desa)의 축 구조와 성스러운 공간 질서

발리의 전통 취락은 가옥을 품고 있는 한 차원 높은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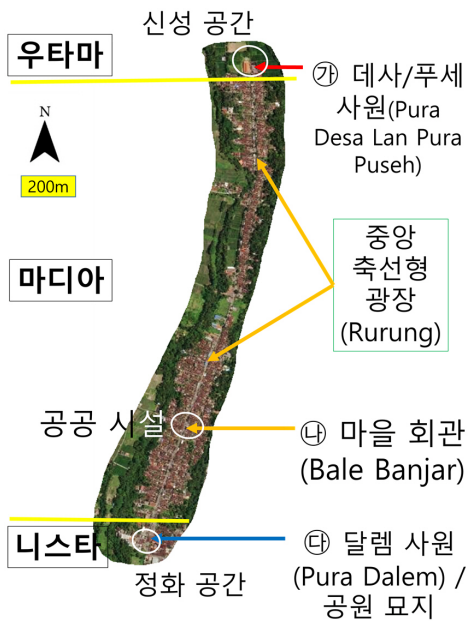
계의 소우주이며, 가옥의 공간 조직 원리가 마을 전체의 스케일로 확장되어 투영된다(Hobart et al., 1996:105-107). 가옥이 9방위 평면을 통해 우주의 질서를 모방했다면, 취락은 마을을 관통하는 거대한 카자-클로드 축을 중심으로 공간을 삼분하여 트리 히타 카라나의 이원론적 동적 균형을 지표상에 구현한다. 마을 전체 역시 가옥과 동일하게 신성함의 위계에 따라 세 영역으로 엄격하게 구획되는 것이다(Budihardjo, 1985; Dwijendra, 2003:19).

마을의 우타마 영역은 카자 방향에 위치하며, 마을 전체의 영적 중심점 역할을 한다. 이는 마을 스케일에서의 파라향안 공간이다. 아이즈먼(Eiseman, 1990:279-281)은 발리의 모든 전통 마을이 '카향안 티가(Kahyangan Tiga)'라 불리는 3대 사원 체계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중에서도 마을 공동체의 시조와 신성한 생명력을 관장하는 기원 사원인 푸세 사원(Pura Puseh)과 마을을 수호하는 데사 사원(Pura Desa)이 바로 이 가장 높은 카자 영역에 배치된다. 마을 사람들은 수직적으로 높은 이 신성한 구역을 향해 공동체 의례를 수행함으로써, 마을 전체의 안녕과 결속을 다진다.

마디아 영역은 인간의 일상과 사회적 규범이 작동하는 파웁안의 공간이다. 마을의 중앙부에 펼쳐진 이 구역에는 주민들의 가옥들이 격자형으로 밀집해 있으며, 공동체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마을 회관(Bale Banjar)과 일상적 경제 활동의 중심인 시장(Pasar)이 위치한다. 특히 발리 평지 취락의 경우, 카자-클로드 축과 강인-카우 축이 십자로 교차하는 마을의 중앙 교차로인 '차투스 파타(Catus Patha)'는 마을의 공간적 중심이자, 성과 속의 기운이 충돌하고 융합하는 우주적 배꼽(Puser)으로 간주된다(Suartika, 2010:52-54). 대규모 정화 의식 등의 레가 거행되는 핵심 장소이다.

니스타 영역은 클로드 방향에 배치되며, 트리 히타 카라나의 팔르마한에 대응한다. 이곳은 죽음, 쇠퇴, 그리고 자연으로의 회귀와 순환을 상징하는 가장 세속적인 공간이다. 마을의 하단부인 이곳에는 파괴와 재생의 신인 시와(Siwa) 또는 두르가(Durga)를 모시는 죽음의 사원인 달렘 사원(Pura Dalem)과 마을 묘지(Setra)가 자리한다(Reuter, 2002:88). 인간의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여 흙과 물, 즉 거대한 자연 생태계(Palemahan)로 해체되어 돌아가는 공간이다.

이처럼 취락의 공간 구조는 가옥 단위(미시)에서 작동하던 우주론적 원리(트리 히타 카라나)가 마을 공동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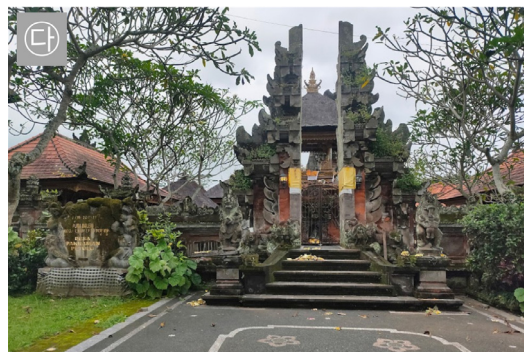
① 양가 트리의 공간 구조



② 마을 상단의 우타마 영역(사원 및 공회당)



③ 마을 중단의 마디아 영역(주거지 및 공공시설)



④ 마을 하단의 니스타 영역(사원과 묘지)

그림 8. 발리 전통 산지 취락(아가)의 트리 만달라 공간 구조(Ubud 북부의 Petulu)

출처 : 사진-이간용, 2025.01., 지도-Google Earth 지도에 지리 정보 추가

시)라는 보다 상위의 스케일로 확대 복사된 결과물이다. 발리인들은 마을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거대한 신체로 인식하며, 신성(사원)-중간(거주지 및 교차로)-세속(묘지)의 위계를 물리적인 지리 공간상에 구현해 냄으로써 현세의 번영과 공동체의 조화를 유지해 왔다고 하겠다.

발리의 전통 취락은 기본적으로 위의 원리를 따른다. 하지만 산지와 평지 취락 간에는 구조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산지 취락, 곧 아가(Aga) 취락은 상대적으로 힌두-자바 문화 유입 이전 발리의 전통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데사 및 푸세 사원으로부터 이어지는 중앙 축선형 광장(Rurung) 혹은 중앙 회랑(도로)을 축으로 마을이 조직된다. 반면 평지 취락, 곧 다타란(Dataran) 취락은 힌두-자바 문화의 강한 영향을 받은 차투스 파타(Catus Pata)³⁾ 패턴을 가진다. 곧, 중앙 십자로 광장이 축의 역할을 한다(Budihardjo, 1991; Putra et al., 2020).

사례를 통해 비교해 보기로 한다. 먼저 발리 중북부의 전통 산지 취락인 페툴루(Petulu)²⁾의 경우(그림 8), 사원 단지의 우타마 영역, 중간에 마디아 영역, 그리고 가장 세속적이고 순환과 정화의 공간인 니스타 영역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마을 상단의 우타마 영역에는 데사 및 푸세 사원이 자리한다. 그곳에는 마을의 대규모 종교적 행사장, 곧 전통 개방형 공회당인 완틸란(Wantilan)이 필수적으로 입지한다. 완틸란은 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며, 규모 있는 이중 지붕이란 독특한 형상을 띤다(그림 8-②).

이 사원으로부터 하류(혹은 남쪽이나 바다) 방향으로 중앙 축선형 광장, 곧 중앙 회랑(도로)가 길게 뻗는데, 이는 신성의 흐름, 곧 영적인 통로이다. 마을의 주요 사원과 공공건물이 이 축을 따라 배치되므로 매우 높은 신성도를 가진다. 그런 까닭에 중앙 회랑은 도로라기보다는 '길게 늘어진 광장'이다. 곧, 마을의 정체성과 신성함을 상징하는 중앙 광장형 대로서서 핵심 의례 공간이자 공공의 장소이다. 다시 말해 물리적으로는 마을의 주도로이자, 정신적으로는 종교적·공동체적 중심축이다(Purnawan, 2011). 일반 가옥은 이 회랑을 따라 줄지어 마주 보고 입지한다(그림 8-①).

마을 중단의 마디아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발레 반자르(Bale Banjar)라 불리는 개방형 마을 회관이다. 우타마 영역의 완틸란이 종교적 행사장이자라면, 이 발레 반자르는 행정적 모임과 일상의 의사결정 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마을 회관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 공간으로서 발리 전통 취락의 특징적인 구조이다. 마을

회관 가까이에 동사무소 등과 같은 행정 기관이 입지한다(그림 8-③). 그런데 이 발레 반자르 형태의 마을 회관은 중앙 회랑을 따라 군데군데 다수 입지 하며, 이곳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휴식하는 장면이 흔히 목격된다. 이 반자르는 발리인들이 공동체적 삶의 방식, 민주적 합의와 의사결정 등 일상적 민주주의에 일찍부터 익숙하고 체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의견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은 일상의 민주주의 발달에 필요한 물리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마을 하단의 니스타 영역에는 달렘 사원(Pura Dalem)과 공동묘지가 자리한다(그림 8-④). 달렘 사원은 죽음과 재생의 신인 시바와 두르가를 모신다. 그렇지만 단순히 죽음을 상징하는 곳을 넘어, 사후 세계의 영혼을 정화하고 마을 상단의 브라흐마를 모시는 푸세 사원과 함께 마을의 영적 균형을 유지하는 수호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른 사례로서 발리 중서부의 팅리푸란(Penglipuran) 마을의 경우, 이곳은 트리 히타 카라나의 우주관이 가장 잘 구현된 전형적인 취락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관광지이기도 하다. 이 마을 역시 상단의 우타마, 중단의 마디아, 하단의 니스타 영역으로 명확히 구분된다(Hakim and Setiadi, 2016)(그림 9).

이어 평지 취락의 사례를 보면, 그림 10과 같다. 이 평지 마을도 상단의 우타마, 중단의 마디아, 하단의 니스타 영역이 배분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마을 중단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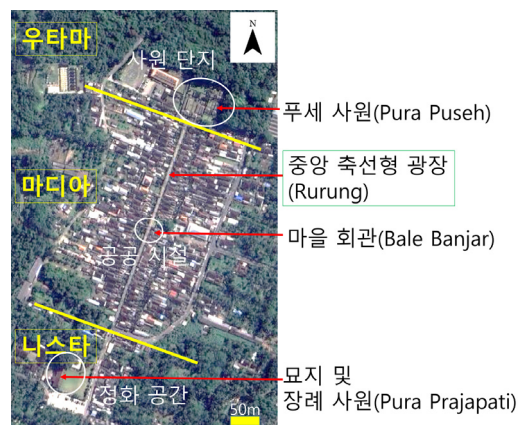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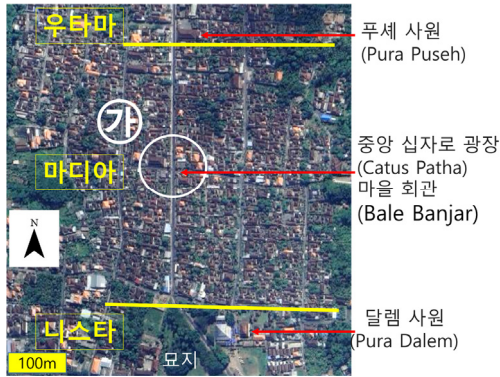


그림 9. 발리 전통 산지 취락(아가)의 트리 만달라 공간 구조 (Bangli of the Penglipuran)

출처 : Google Earth 지도에 지리 정보 추가



㉞ 지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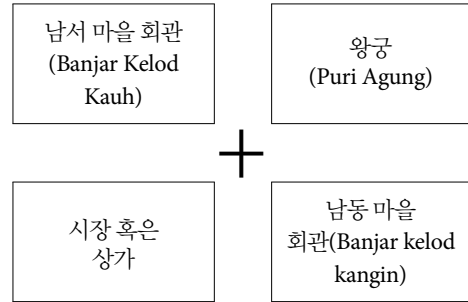


그림 10. 발리 전통 평지 취락(Dataran)의 트리 만달라 공간 구조(Gianyar의 Beng)

출처 : Google Earth 지도에 지리 정보 추가

중앙 십자로 광장을 중심으로 궁을 비롯하여 마을 회관과 시장 등 취락의 중추적 기능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지 취락의 한 사례를 더 들여본다면, 그림 11과 같다. 이 마을 역시 우타마, 마디아, 니스타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십자로 광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시설이 입지하고 있다는 점은 그림 6의 마을 사례와 동일하다.

이처럼 발리의 전통 취락은 산지든 평지든 트리 히타 카라나 우주관에 따라 공간이 조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 조직은 흥미롭게도 발리의 지형 및 지세 특징과 절묘하게 부합한다는 점이다. 곧, 발리 중북부 지역에 무수히 발달한 협장형 구릉지는 종축 중심의 선형 구조를 형성하고, 중남부 지역의 장방형 구릉지는 십자로 중심의 방형 구조를 형성하는 물리적 바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거시적 생태·생산 공간: 수박(Subak)의 수계 구조와 제의적 공간 질서

가옥과 마을 단위에 적용되던 트리 만달라는 생태·생산 수리 공간에서도 구현된다. 수박으로 지칭되는 이 전통적인 사회·생산·종교적 수리 공간(Windia, 2006)은 카자-클로드 축을 따라 신, 인간, 자연의 3요소가 중첩되어 작동하는 복합적 우주관의 실현 장소이다.

먼저 가장 신성한 상류의 우타마는 생명력의 원천인 최고(最高) 수원지와 보호림으로 구성된다(그림 12). 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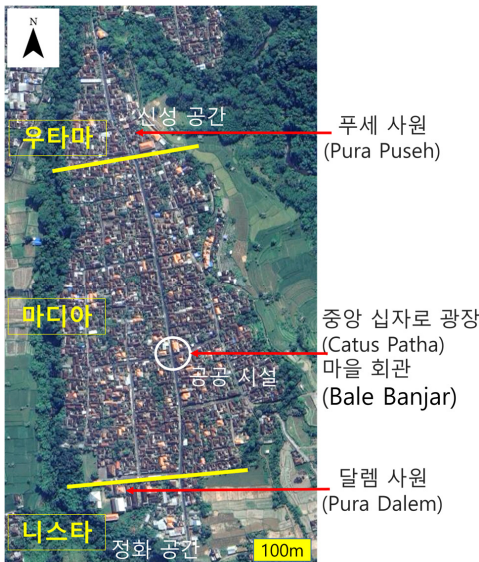


그림 11. 발리 전통 평지 취락(차투스 파타) 트리 만달라 공간 구조(Gianyar의 Tegal Tugu)

출처 : Google Earth 지도에 지리 정보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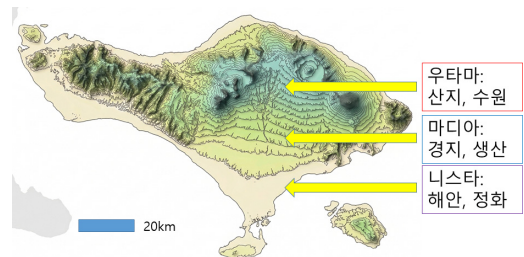


그림 12. 발리의 거시적 생태·생산 공간의 트리 만달라 구조
출처 : 아이디어-Rigg, 1996, 지도-Linkedin의 원도에 지리 정보 추가

인들에게 물은 우주적 질서의 흐름 그 자체이며, 브라탄이나 바투르 같은 칼데라 호수(카자, 최상위 위계)에서 그 여정이 시작된다. 이 공간은 종교적 위계가 가장 높은 올룬 다누 사원(Pura Ulun Danu)이 관장하며, 물리적 수원의 보호뿐만 아니라 수박 전체에 신성한 물을 분배하는 영적 중심지로서 파랑향안의 핵심이 된다(Lansing, 1987; Lansing, 1991:37-40). 우타마 공간의 보존은 곧 전체 수박 생태계의 유지를 의미한다.

이어 산비탈과 평야가 펼쳐지는 마디아는 인간의 농업 활동과 물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계단식 논 영역이다(그림 12). 이곳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이 가장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중간 영역이다. 팔르마한의 측면에서 계단식 논은 지형과 물의 중력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한 생태적 순응의 경관이다(Windia, 2006). 파왕안의 측면에서 이 공간은 면적(面的) 단위의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 수문학적(hydrological) 물길에 따라 선형적이고 유동적으로 구획되는 독립적인 자치 영역을 형성한다(Geertz, 1980; Roth, 2014).

농민들은 이 마디아 영역의 중심에 발레 수박(Bale Subak)을 세우고, 9~10세기부터 이어져 온 관습법인 '아웁-아웁(Awig-awig)'을 통해 자치 공동체를 운영해 왔다(Christie, 1992:7-10). 주목할 점은 이 마디아 영역 내에서도 종교적 위계가 철저히 관철된다는 것이다. 지역 단위의 마스체티 사원, 수박 단위의 베두굴 사원, 개별 논배미의 상가 차투(Sanggha Catu) 제단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인 사원 네트워크⁴⁾가 수리적 분기점(Node)마다 배치되어 있다(Brooks *et al.*, 2018). 즉, 마디아 영역은 평등주의적 물 분배라는 사회적 조화와 종교적 성소가 일체화된 공간이다(그림 13). 특히 베두굴 사원은 그 역할의 핵심이다(그림 14-⑤).



그림 13. 수박 사원 네트워크 최하 단위(상가 차투)에서의 의식 사례(Gianyar의 Pekarangan 수박, 2022.04.21.)

출처 : Youtube, 2025.

마지막으로 하류의 배수로와 바다로 이어지는 니스타는 물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정화의 영역이다. 농경지를 거친 물은 하천을 통해 클로드 방향의 바다로 흘러가며 우주적 순환을 완성한다(그림 12). 니스타 영역 잉여의 물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생태적 배수구 역할을함과 동시에, 바다에서 정화된 물이 다시 비가 되어 우타마 영역의 호수로 돌아가는 순환적 우주관을 공간적으로 종결짓는 역할을 한다.

거시적 생태·생산 공간에서 트리 히타 카라나 우주관 구현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중서부 및 중동부 지역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중서부 자틸루위 수박(Subak Jatiluwih)의 사례이다. 이 수박은 발리 전체 물 사원 체계의 양대 최상위 사원 중에서 중서부의 올룬 다누 브라탄 사원(Pura Ulun Danu Bratan)을 영적 최상위 사원으로 삼는다(그림 14-①). 이어 바투카루산 남서부 일대 자투루 앙가 바투카루(Catur Angga Batukaru) 지역의 총괄사원인 루흐르 바투카루 사원(Pura Luhur Batukaru)(그림 14-②)과 실제 직속 사원인 푸착 프탈리(Pura Luhur Pucak Petali)(그림 14-③) 사원의 관할 하에 있다.

아울러 수박 중앙부 하단에 위치한 횡적 광역 사원인 브시 칼롱 사원(Pura Besi Kalung)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수박 하위 단위인 템팩 내 조합원들의 제의와 농사 협업 실무 공간인 베두굴 사원(Pura Bedugul)(그림 14-⑤), 마지막으로 개별 농지 사당인 상가 차투(Sanggha Catu)가 자리한다. 이처럼 수박은 최상위 영적 사원으로부터 최하위 사당에 이르기까지 위계적 종교 네트워크를 이루는 방식을 통해 트리 히타 카라나가 구현된다.

이에 따라 자틸루위 수박 역시 카자-클로드의 축을 따라 수원지 일대인 상단 산기슭은 우타마, 중단의 계단식 논들의 마디아, 배수로 일대의 니스타 영역으로 구분된다(그림 14-③), 이러한 공간적 질서는 수박의 하위 단위인 템팩에서도 동일 반복으로 형성된다(그림 14-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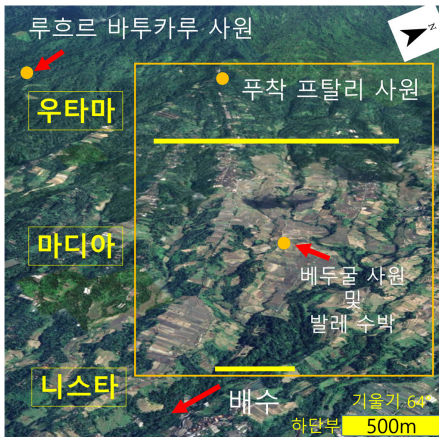
한편, 베두굴 사원에는 앞서 발리의 전통 취락 우타마 영역 내 완틸란이나 마디아 영역 내 발레 반자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협의 공간인 발레 수박(Bale Subak)이 반드시 함께한다. 이곳은 수박 혹은 템팩 단위의 농민 조합원들이 일상적인 행정 업무, 수박 회의, 공동 제례 등이 이루어지는 종교적 및 사회적 공간으로서, 트리 히타 카라나 중 파왕안을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Gany, 2001; Tantri1 *et al.*,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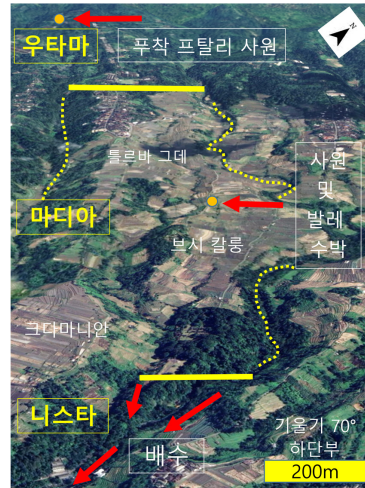
① 발리 전역 수박 사원의 양대 최상위 사원



② 자투르 앙가 바투카루 지역의 광역 총괄 사원 (루호르 바투카루 사원)



③ 자틸루위 수박의 직속 사원(푸착 프탈리 사원) 및 트리 만달라 공간 구조



④ 자틸루위 수박 내 세 하위 템팩의 실무 사원(베두굴 사원) 및 트리 만달라 공간 구조



⑤ 베두굴 사원의 구조



⑥ 개별 농지 사당

그림 14. 발리 수박 사원의 종교적 위계 및 트리 만달라 구조(Subak Jatiluwih의 사례)

출처 : ①~④-Google Earth에 지리 정보 추가, ⑤~⑥-저자, 2025.01.

* 카투르 앙가 바투카루는 바투카루 산의 수원(水源)을 영적·물리적으로 관리하는 네 공동체(Catur Angga)를 의미하며, 자틸루위 수박을 비롯한 총 17개의 수박으로 구성됨(The Ministry of Cultural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the Government of Bali Province, 2011).

다음으로 중동부 지역의 페툴루 수박(Subak Petulu)의 사례이다(그림 15). 자틸루위 수박이 중서부의 브라탄 호수 및 사원을 영적 수원으로 삼는다면, 페툴루 수박은 중동부의 바투르 호수 및 사원이 영적 수원이다. 이곳 역시 자틸루위 수박과 마찬가지로 수박 상단의 우타마, 중단의 마디아, 하단의 니스타 영역으로 구분된다(그림 15-①). 아울러 베두굴 사원의 존재 및 발레 수박과 결합되어 있는 점은 자틸루위 수박에서도 동일하다(그림 15-②).

발레 수박 곧, 베두굴 사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35일마다 정기 총회가 열리며, 모든 회원이 참석해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 사원 및 기타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

가장 중요한 관계 분배 문제 및 분쟁 해결 등 모든 측면이 논의된다(Gany, 2001:9-24). 참고로 베두굴 사원이 수계의 종적 질서에 따른 사원이라면, 마스체티 사원은 주위 수박들간 횡적 연합 사원의 성격을 지닌다. 베헤르구 등 병충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수박 간 횡적 연대가 중시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틸루위 수박에서는 베시 칼롱 사원이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사원 역시 베두굴 사원처럼 사원과 공회당이 결합되어 있는 점에서(그림 15-④), 트리 히타 카라나 중 파라향안과 파웡안의 구현 방식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트리 히타 카라나 우주관에 따른 트리 만달라의



① 단위 수박의 트리 만달라 구조



② 베두굴 사원의 구조



③ 단위 논의 트리 만달라 구조



④ 마스체티 사원(Pura Masceti, 수박 연합 사원)의 구조

그림 15. 발리 수박의 트리 만달라 구조(Subak Petulu의 사례)

출처 : 지도-Google Earth 지도에 지리 정보 추가, 사진-저자, 2025.01.

구현은 그림 15-③에처럼 미시적인 한 필지 단위의 논에서도 나타난다. 곧, 논으로 물이 들어오는 관수 부근이 우타마, 벼가 자라는 땅이 마디아, 배수 지점이 니스타인 것이다. 이처럼 수박은 최대 및 최상위에서 최소 및 최하위 단위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와 구조 면에서 동일한 프랙탈적 구조를 반복하는 공간적 특성을 지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박은 발리의 지형 경사와 힌두 우주관의 위계를 일치시킨 트리 만달라의 거시적 구현체이다. 이는 수원(우타마), 자치 공동체와 경작지(마디아), 하천(니스타)으로 이어지는 공간 구조 내에서 신(파라향안)·인간(파웡안)·자연(팔르마한)의 상호작용을 체계화한다(UNESCO, 2012). 결과적으로 수박은 상가 만달라라는 형이상학적 원리가 지형 및 수계라는 물리적 실체와 결합하여 완성된 기능적·상징적 공간 조직이라 하겠다.

4. 논의의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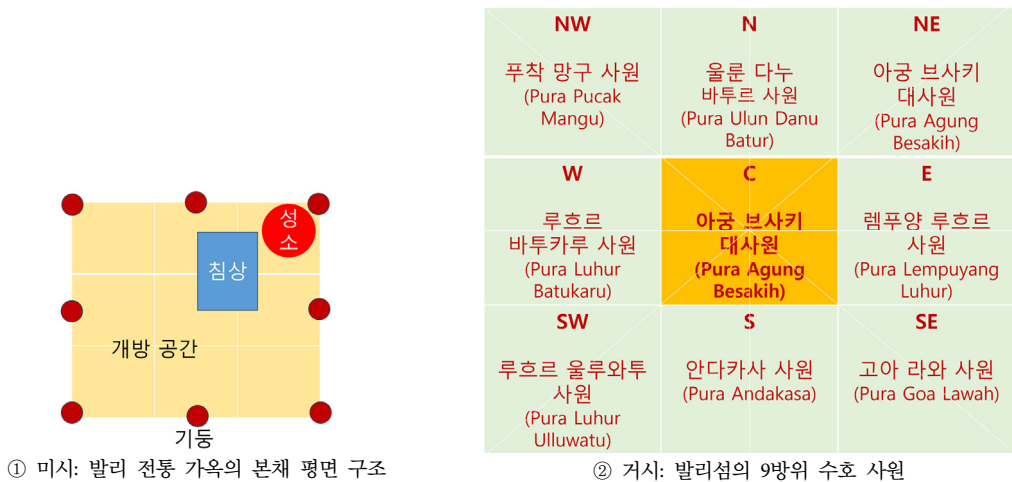
발리의 트리 히타 카라나의 우주관에 따른 상가 만달라 원리는 앞서 말한 3개 스케일에서 뿐만 아니라, 가옥 내 본채와 같은 더욱 미시적 공간 단위에서도 작동한다(그

림 16-①). 예를 들면, 발레 다자(그림 3의 ② 참조)에서도 북동쪽에 침상을 배치하고, 또 그 북동 모서리에 작은 성소를 설치하는 점에서 그러하다(Saraswati, 2009). 나아가 발리섬 전체를 수호하는 9개 방위별 사원 배치라는 가장 거시적인 공간 단위에서도 작동한다(그림 16-②).

이처럼 발리의 미시에서 거시에 이르는 모든 공간은 트리 히타 카라나의 우주관과 그에 따라 상가 만달라의 원리에 따라 조직되고 구조화된다. 이와 관련하여 종교 및 그 공간에 대한 최근의 지리학적 연구(최원희·이근화, 2019; 최원희·성정락, 2019)는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발리인들의 종교적 우주론의 태동과 강화, 그리고 공간적 구현을 가능케 한 지리적 요인은 무엇일까? 그 주요 요인은 발리의 자연환경, 곧 지세 및 지형 특성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본다.

먼저 발리는 ‘섬(island)’이란 특성을 지닌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도서 지형으로서, 지리적 폐쇄성에 따른 하나의 독자적인 완결성을 지닌 공간이다. 그런 데다가 전체적인 형상이 대략 장방형을 이루고 있어(그림 17), 모종의 방위 관념을 형성하거나 적용하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 아궁 브사키 대사원은 상가 만달라의 중앙이자 신성한 북동쪽의 지위를 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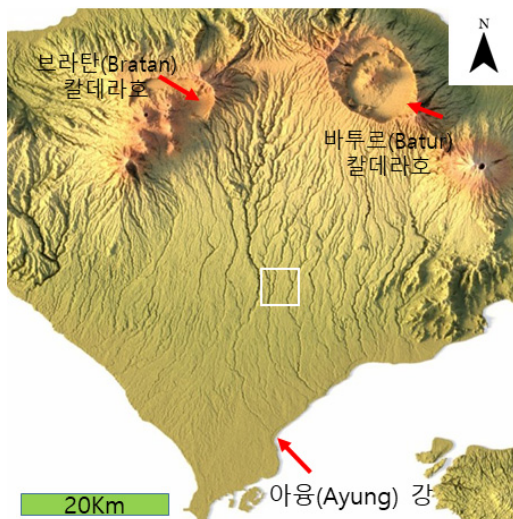
그림 16. 발리의 미시 및 거시 공간 규모에서의 상가 만달라 구현

* ②의 사원 배치는 인도네시아 힌두교 협의회(PHDI)가 규정한 카양간 파드마 부아나(Kahyangan Padma Bhuwana, 발리의 9방위 우주론적 사원 체계) 사원 분류 체계를 따름.



그림 17. 발리 중북부 화산들의 대칭 구도 및 배열
출처 : 3dexport의 지세도에 지리 정보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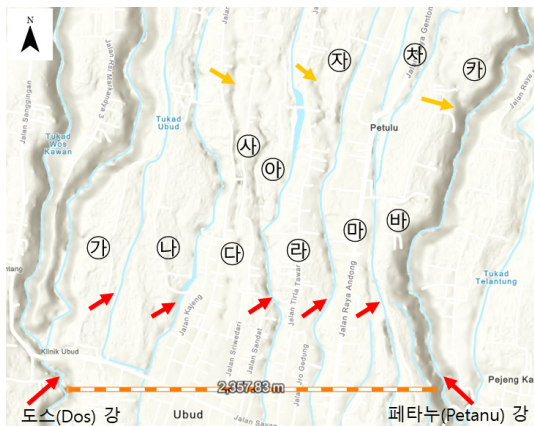
여기에 무엇보다도 발리의 전체적인 지세의 발달과 화산 지형들의 대칭적 배열은 발리인들의 우주관 및 공간관을 형성하거나 공고히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벵농사에 필수적인 물을 담은 산정 호수(브라탄 및 바투르)의 발달, 동서로 현저한 높이와 형상을 지닌 두 화산(바투카루 및 아궁)의 나란한 배열, 두 호수 및 화산의 중간을 흐르는 발리 최장 하천(아윅강)의 발달 등 절묘한 공간적 대칭성이다. 또한 최고 높이의 유려한 아궁산이 '북동쪽'에 자리하는 점, 섬의 거대한 랜드마크이자 실질적인 효용성(물)을 가진 이 네 지형지물이 대략 '북쪽'에 위치하고 그 남쪽으로 부채꼴



① 지세 특성(거시)



② 수계 특성(거시)



③ 종렬적 구릉, 수계, 가로, 취락 간 관계(미시)

- * ③은 ①의 흰색 사각형 지역을 확대한 것으로 발리 중남부의 Ubud 북부 일대를 나타냄.
- * 지도에서 화살표는 하천을 지시함(열은 황색 화살표는 건천 혹은 곡임).
- * 지도에서 ㉑~㉑는 구릉을 나타냄.
- * 도스강과 페타누강 사이의 동서 2.4km 범위 내에 무려 5개의 하천이 거의 평행하게 흐르며, 이에 따라 6개의 종렬적 구릉(㉑~㉑)이 발달함. 건천 혹은 곡(谷)을 포함할 경우, 모두 11개의 구릉(㉑~㉑)이 발달함.
- * 이에 따라 협장형 구릉 상부를 따라 남북 방향의 도로와 선형 취락이 형성됨.

그림 18. 발리의 지세 및 수계 특성

출처 : ①-3dexport의 지도, ②-Balipartnership의 지도, ③-Aarcgis의 지도에 지리 정보 추가

형상의 넓은 사면이 전개되는 기하학적인 질서도 나타난다는 점도 그러하다(그림 17). 이러한 지세 및 지형 특성은 발리인들에게 있어 균형과 조화의 관념, 물리적 혹은 종교적 방위 관념, 상-하 혹은 고-저 혹은 남-북 축 중심의 이원적 공간 관념 등의 종교적 우주관을 형성하거나 강화하였을 것이다.

또한 발리의 지표면에는 화산활동에 의한 화쇄류의 응결 및 지속적인 침식 활동에 따라 전체적으로 남북 방향으로 무수한 협장형 독립 구릉과 하천이 발달한다는 점이다(그림 18). 이 종렬적 독립 구릉과 하천은 한 단위 완결적 형상의 선형 취락 및 수박의 발달, 그에 따라 이원적 축에 기초한 공간 조직 등 발리인들이 상호 독립적인 단위의 생활 공간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그림 18-③). 구릉과 하천에 의해 그 경계가 물리적으로 제한받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 시대에 섬의 규모에 비하여 다수의 왕국이 존재했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그림 19).

특히, 발리의 복잡한 하계망과 다수의 용천 분포(그림 18-②)는 특정 단일 수계 중심의 위계 질서를 완화시키며, 다양한 지역 공동체가 각각의 수원을 신성한 기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적 조건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발리인들의 우주관과 공간관은 발리 화산활동이 형성한 독특한 지세와 지형, 구체적으로는 남북 방향의 무수한 종렬적 구릉과 수계, 그리고 그들간 교호적 분포와 일정 부분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주관을 구현하는 데도 유효한 측면이 있었다고 이해된다.

결과적으로 발리의 공간 구조는 종교적 세계관(조화)이 공간 규범(상가 만달라·트리 만달라)으로 치환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미시적 단위인 가옥에서 거시적

단위인 수박(Subak)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원리로 반복·확장되는 자기 유사성을 보인다. 그리고 이는 발리의 지세 및 지형과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고 할 것이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인간의 거주 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환경의 집합이 아니라, 특정 문화 집단의 종교적 우주관(cosmology)과 가치 체계가 공간 속에 구현된 결과물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공간 조직 원리가 실제 공간 구조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발리의 힌두 철학인 트리 히타 카라나(Tri Hita Karana)에 주목하여 종교적 우주관이 다양한 공간 규모 속에서 어떠한 형태론적 질서로 구현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우주와 소우주(Bhuana Agung-Bhuana Alit), 나와 상가(Nawa Sanga) 등의 발리 힌두 우주관에 대한 문헌 고찰을 수행하고, 발리 중부 지역에서 이루어진 현지답사와 디지털 영상 지도 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 발리의 공간 체계는 공통된 우주론적 질서가 서로 다른 공간 규모 속에서 반복·변주되며 구현되는 유기적 공간 체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미시적 생활 공간인 가옥(Pekarangan)은 방향 체계와 공간 위계를 바탕으로 신성과 세속,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소우주적 공간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간 규모의 공동체 공간인 취락(Desa)은 3대 사원(Kahyangan Tiga)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간 구조와 카자-클로드(Kaja-Kelod) 축을 통해 종교적 방향 질서를 공동체 규모로 확장하고 있었다. 셋째, 거시적 생태·생산 공간인 수박(Subak)은 물 사원 네트워크와 공동체 조직, 계단식 논 경관이 결합된 형태를 통해 종교적 우주관과 생태적 질서가 통합된 공간 체계로 기능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세 공간 규모는 서로 독립된 체계가 아니라, 공통된 우주론적 원리를 공유하며 상호 연계된 공간 질서를 형성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발리의 사례는 종교적 우주관이 단순한 관념 체계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공간 규모 속에서 공간 배치와 방향 체계, 사회적 위계 및 생태적 관계를 조직하는 중요한 원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개별 공간 단위나 특정 학문 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한계를 보완하여, 가옥·취락·수박을 하



그림 19. 1900년경 발리 9개 왕국의 분포

출처 : Wikipedia(Gunawan Kartapranata, 2015)의 지도에서 왕국 정보만 발췌

나의 연속된 공간 체계로 통합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종교와 공간 조직 간의 관계를 형태론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발리 공간 구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간의 정주 공간이 형이상학적 우주관과 실제적 생태 질서가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문화적 텍스트'이자 일종의 '우주론적 공간'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문화지리학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인간·자연·종교 질서 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발리의 공간 체계는 공간을 단순한 기능적 대상이 아니라 상호관계 속에서 조직된 생활 환경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과 생태 경관을 모색하는 데 모종의 함의를 제공한다. 다만 본 연구는 발리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례에 기반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동아시아를 비롯한 타 문화권의 종교적 공간 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종교적 우주관과 공간 조직 간 관계를 보다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註

- 1) 데와타 나와 상가(Dewata Nawa Sanga)는 우주를 9개의 방향 체계로 조직하는 발리 힌두의 우주론적 신 체계이며, 이러한 질서는 상가 만달라(Sanga Mandala)라는 공간 조직 원리를 통해 현실 공간에 구현된다. 상가 만달라는 우주를 9개의 방위 체계로 조직하는 우주론적 공간 질서이고, 트리 만달라(Tri Mandala)는 공간을 성스러움의 위계에 따라 세 영역으로 구획하는 원리이다. 곧, 9방위 체계는 '좌표', 3분할 체계는 '위계'이다. 발리의 전통 공간은 이 두 체계가 결합되면서 방향성과 위계성이 동시에 부여된다.
- 2) 이 마을은 발리 중남부의 우붓(Ubud) 북부에 위치한다. 마을은 북부의 반자르 페툴루 구농(Banjar Petulu Gunung)과 남부의 반자르 페툴루 데사(Banjar Petulu Desa)로 이루어져 있다. 2025년 1월 당시 마을 전체 인구수는 내국인 972명, 외국인 26명 총 998명이며 가구 수는 241호였고, 이중 농부가 503명이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986명(98.8%)이므로 마을의 주류 공동체가 매우 강력한 종교적·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 3) 고대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Catus'는

숫자 '4'를, 'Pata(Phata/Patha/Pata)'는 '길'을 의미한다. '네 갈래의 길', 즉 십자로(十字路)이다. 발리의 전통 공간 계획에서 차투스 파타는 두 거대한 축인 '카자-클로드(Kaja-Kelod, 산-바다 축)'와 '강인-카우(Kangin-Kauh, 동-서 축)'가 직각으로 교차하여 만나는 중심점이다. 영적 에너지가 교차하는 가장 신성하면서도 역동적인 지점으로 간주된다. 이곳은 우주론적 중심이자, 권력, 상업, 종교, 사회 활동이 한데 모이는 물리적 광장이며 심장부 역할을 하는 동시에 행진이나 대규모 정화 의식이 치러지는 의례적 장소이다. 이에 따라 가장 신성한 방위인 십자로 북동쪽에 왕궁(Puri) 또는 주요 사원이 입지하고, 남서부에 세속적인 경제 활동과 물류의 중심인 시장이 입지하는 경우가 많다.

- 4) 울룬 다누(Pura Ulun Danu)는 최고(最高) 사원으로서 브라탄(Bratán) 및 바투르(Batur) 칼데라 호수나 부근에 위치하며, 수계 전체의 근원이 되는 물의 여신을 모신다. 마스체티(Pura Masceti) 혹은 울룬 수위(Pura Ulun Suwi)는 지역 단위 사원으로서 하천이나 큰 보 주변에 위치하며, 같은 수원을 공유하는 여러 개의 수박(Subak) 조합들을 하나로 묶어 파종 및 관개 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베두굴(Pura Bedugul) 혹은 수박 사원(Pura Subak)은 개별 수박 단위의 사원으로, 단위 수박의 주된 물줄기가 나뉘는 분기점(inlet)이나 조합 구역 내에 세워지며, 조합원들의 공동 제의가 이루어진다. 상가 차투(Sanggha Catu) 혹은 울룬 차릭(Pura Ulun Carik)은 개인 단위 제단으로서 개별 농민이 자신의 논배미로 물이 들어오는 수로 입구에 소형 석탑이나 대나무 등으로 세우는 가장 작은 단위의 사당이다(Lansing, 1987; Windia, 2006).

참고문헌

- 박제연, 2018, "신과 인간의 사원: 발리 동부 바투르 사원 사례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성원, 2010, "관광 산업, 국가 그리고 발리 문화: 발리 전통의 재창조 현상을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19(3), 161-208.
- 양승윤, 2005, "인도네시아의 인도 문화와 인도인 사회에 대한 소고," 남아시아연구, 11(1), 43-58.
- 윤혜린, 2014, "지구화 시대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성 생산

- 에 대한 연구: 인도네시아 발리의 키아단 펠라가 마을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31(2), 135-168.
- 이간용, 2025, “인도네시아 발리(Bali)의 자연 및 인문경관-거시적 스케일에서의 특성과 관계-,” 한국사진지리학회지, 35(1), 23-42.
- 이간용, 2026, “인도네시아 발리 수박(Subak)의 공간적 특성 및 변화-다층적 스케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36(1), 121-143.
- 이정은, 2023, “인도네시아 발리의 천연염색 현황 연구,” 한복문화, 26(1), 123-140.
- 장상경, 2024, “인도네시아 발리 관습 마을 자치 규약 ‘아웁아웁’ 연구: 까랑아섬 군 뎀브라 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27(1), 141-160.
- 장순용, 1997, “인도네시아 건축을 찾아서 1,” 건축사, 338(8), 86-91.
- 정강우, 2014, “인도네시아 발리 춤 구조를 통한 힌두 이외의 원류 사상 탐색,” 동양예술, 26(26), 412-432.
- 정정훈, 2018, “생태-문화관광의 현황과 재고찰: 인도네시아 발리 지역의 수박(subak) 사례,” 문화정책논총, 32(1), 167-193.
- 정정훈, 2021, “밀양아리랑의 전승에 대한 재인식: 발리 수박(Subak) 관념 체계 전승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80, 245-276.
- 정주연·이혜은, 2016, “문화경관으로 등재된 세계유산의 비교: 아시아 논농사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6(3), 87-106.
- 최원희·이근화, 2019,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의 변천 및 종교구성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8(2), 235-259.
- 최원희·성정락, 2019, “계룡산 신도안 종교촌의 내부구조 및 경관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8(2), 261-287.
- 홍석준, 2005, “인도네시아 발리(Bali) 섬 축제의 문화적 특징과 의미: 성스러움과 일상적인 세속이 공존하는 섬 축제,” 도서문화, 26, 8-19.
- Adhika, I. M. and Dwijendra, N. K. A., 2020, Local wisdom in reducing greenhouse effect on Balinese traditional settlement patterns in Bongli Village, Bali, Indonesia, *Engineering and Technology Quarterly Reviews*, 3(1), 23-33.
- Artayasa, I. N., 2021, Ergonomics and Tri Hita Karana conception in Balinese traditional houses building, *MUDRA Journal of Art and Culture*, 36(1), 58-65.
- Brooks, J. S., Reyes-García, V., and Burnside, W. R., 2018, Re-examining Balinese subaks through the lens of cultural multilevel selection, *Sustainability Science*, 13, 35-47. <https://doi.org/10.1007/s11625-017-0453-1>
- Budihardjo, E., 1985, *Architectural Conservation in Bali*, Yogyakarta: Gadjah Mada University Press.
- Christie, J. W., 1992, Water from the ancestors: Irrigation in early Java and Bali, in Rigg, J.(ed.), *The Gift of Water: Water Management, Cosmology and the State in Southeast Asia*,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London: University of London.
- Dharmayanty, N. L. P. D., Paturusi, S. A., Dwijendra, N. K. A., and Dewi, N. K. A., 2019, Vertical housing development on control regional Bali regulation of building height, *International Journal of Engineering and Emerging Technology*, 4(2), 11-15. <https://doi.org/10.24843/IJEET.2019.v04.i02.p03>
- Dwijendra, N. K. A., 2003, Perumahan dan Permukiman Tradisional Bali(Traditional Balinese Housing and Settlements), *Jurnal Permukiman Natak*, 1(1), 8-24.
- Dwijendra, N. K. A., 2008, *Arsitektur Rumah Tradisional Bali: Berdasarkan Asta Kosala-Kosali*, Denpasar: Udayana University Press.
- Eiseman, F. B., 1990, *Bali: Sekala and Niskala*, Vol. 1: Essays on Religion, Ritual, and Art, Singapore: Periplus Editions.
- Eliade, M., 1959,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Gany, A. H. A., 2001, *Subak Irrigation System in Bali: An Ancient Heritage of 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 in Modern Indonesia*, Research Institute of Water Resources, Ministry of Settlement and Regional Infrastructure, West Java.
- Geertz, C., 1980, Organization of the Balinese subak, in Coward, E. W.(ed.), *Irrigation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in Asia: Perspectives from the Social Scie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Hakim, B. R. and Setiadi, A., 2016, Bali traditional settlement morphology analysis: Penglipuran, Kubu Village, Bangli Regency, Bali Province, *DIMENSI: Journal of Architecture and Built Environment*, 43(1), 47-54.

- Hauser-Schäublin, B., 1993, Keraton and temples in Bali: The Transcendental Organization of Rulership between Centre and Periphery, in Nas, P. J. M.(ed.), *Urban Symbolism*, Leiden: E. J. Brill, 280-314.
- Hobart, A., Ramseyer, U., and Leemann, A., 1996, *The People of Bali*,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Lansing, J. S., 1987, Balinese water temples and the management of irrig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89(2), 326-341.
- Lansing, J. S., 1991, *Priests and Programmers: Technologies of Power in the Engineered Landscape of Bal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ansing, J. S., 2006, *Perfect Order: Recognizing Complexity in Bal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ansing, J. S., 2007, *Priests and Programmers: Technologies of Power in the Engineered Landscape of Bali, 2nd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itana, I. G., 1994, *Dinamika Masyarakat dan Kebudayaan Bali*, Denpasar: Pustaka Bali Post.
- Purnawan, I. B., 2011, Analysis of symbolic meaning of the space and layout of Angkul-Angkul of traditional house in Penglipuran Village-Kubu District, Bangli Regency, *MUDRA*, 26(3), 232-240.
- Putra, I. D. G., Setijanti, P., and Dinapradipta, A., 2020, The continuity and change of contemporary sacred space in Balinese houses, *ISVS E-journal*, 7(1), 35-47.
- Putra, I. D. G. A. D., Wirawibawa, I. B. G., and Satria, M. W., 2020, Spatial orientation and the patterns of the traditional settlement in Eastern Bali: Investigating new tourism attractions, *GeoJournal of Tourism and Geosites*, 29(2), 614-627. <https://doi.org/10.30892/gtg.29218-493>
- Ramstedt, M.(ed.), 2004, *Hinduism in Modern Indonesia: A Minority Religion between Local, National, and Global Interests*, London: Routledge.
- Rapoport, A., 1969, *House Form and Cultur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Reuter, T. A., 2002, *The House of Our Ancestors: Precedence and Dualism in Highland Balinese Society*, Leiden: KITLV Press.
- Rigg, J., 1996, *The Human Environment, Indonesian Heritage*, 2, Singapore: Archipelago Press.
- Roth, D., 2014, Property and the subak: The spatial-legal constitution of Bali's irrigation landscapes, *Human Ecology*, 42(6), 867-879.
- Saraswati, A. O., 2009, Transformasi arsitektur Bale Daja, *DIMENSI: Journal of Architecture and Built Environment*, 36(1), 35-42. <https://doi.org/10.9744/dimensi.36.1>
- Sitinjak, R. H. I., Wardani, L. K., and Nilasari, P. F., 2020, Traditional Balinese architecture: From cosmic to modern, *SHS Web of Conferences*, 76, 01047. <https://doi.org/10.1051/shsconf/20207601047>
- Suartika, G. A. M., 2010, *Morphing Bali: The State, Planning and Culture*, Saarbrücken: Lambert Academic Publishing.
- Tantri, I. A., Surata, S. P. K., and Vipriyanti, N. U., 2021, Development of participatory educational tourism map in Subak Pulagan,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and Research*, 10(8), 471-477. <https://doi.org/10.21275/SR21810072657>
-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the Government of Bali Province, 2011, *Cultural Landscape of Bali Province: Nomination for Inscription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Denpasar: Bali Province Government.
- Tjahjono, G.(ed.), 1998, *Architecture, Indonesian Heritage*, 6, Singapore: Archipelago Press.
- UNESCO, 2012, *Cultural Landscape of Bali Province: The Subak System as a Manifestation of the Tri Hita Karana Philosophy*, Paris: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 Wijaya, I. K. M., 2021, The paradigm of antithesis and harmony as the dualism of pattern fundamental in architecture of residential houses in Bali, Indonesia, *Civil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9(4), 1110-1122. <https://doi.org/10.13189/cea.2021.090413>
- Windia, I. W., 2006, *Transformasi Sistem Irigasi Subak yang Berlandaskan Konsep Tri Hita Karana*, Denpasar: Udayana University Press.
- Arcgis, <https://www.arcgis.com>
- Balipartnership, <https://www.balipartnership.org>
- Balipedia, <https://balipedia.com/penglipuran-village/>
- Booking, <https://www.booking.com/hotel/id/peacefully-traditional-village>

Linkedin, https://www.linkedin.com/posts/ria-guha-neogi-7271b6229_gis-remotesensing-elevationmapping-activity-7193496676848857088-Zvcp

Wikipedi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Bali_Kingdom_Gelgel.svg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Bali_Kingdom#/media/File:Bali_Kingdom_Gelgel.svg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Jp1XBgpHjfA>
3dexport, <https://3dexport.com>

교신 : 이간용, 32553, 충남 공주시 웅진로 27(봉황동), 공주
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이메일: kylee@gjue.ac.kr)

Correspondence: Khan Yong Lee, 32553, 27 Woongjin-ro,
Gongju, Chungnam-Do, South Korea,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kylee @gjue.ac.kr)

투고접수일: 2026년 5월 11일

심사완료일: 2026년 6월 1일

게재확정일: 2026년 6월 4일